DANCING

혁신적 기획에 현명한 정책 있어야

장인주 | 무용이론가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만은 없기에 궁극적으로 이를 운용하고 감시하는 주체인 '사람'이 문제다. 결국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의문점이 언제나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순수예술이란 말보다는 기초예술이란 용어로 대체되고 있는 이즈음, 그만큼 절실함을 알고 있는 정책입안자들이라면 현명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현장경험이 풍부한,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애쓰고 있는 예술가들을 조금 더 따스한 시선으로 돌아봐야 한다.

무용전문기획사 MCT

우리나라에서 '기획'의 의미는 무척이나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인쇄 디자인 업에 속하지만,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매니지먼트 연예 기획사를 포함한 광고업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획사도 그 수가 만만치 않다. 이벤트, 프로덕션까지 모두 기획에 속한다. 초대형 오페라 공연에서부터 현수막 광고까지 모두 이 범주에 속하니 '기획'은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렇듯 흔하게 접하는 '기획'이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정확히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광범위한 탓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기획'이 뿌리를 내린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기 때문이다.

무용계에도 기획사가 여럿이 있다. 서울에만도 9개의 회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통계이고 보면 전국적으로 그 수는 꽤 될 것이다. 최근에는 대다수의 무용공연에 기획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무용가 개개인의 열정에서 스스로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공연 대행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단과 프로그램 인쇄, 홍보, 관람권 판매 등을 포함한 행정 처리를 대행한다.

즉 기획사는 많으나 전문기획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재원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념상의 기획에 충실하길 기대할 수 있을까. 영세한 소규모의 회사 대표에게 임프레사리오(impresario) 역할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물론 실무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기획의 아이디어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들도 자체 기획 공연을 올리고 있으며 보다 재정규모가 안정된다면 제작까지도 가능한 역량을 잠재적으로 키워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12~13일 LG아트센터에서는 무용전문기

획사 MCT가 10주년 기념공연을 가졌다. '움직임, 이미지 그리고 메시지'라는 소제목으로 『오늘의 춤작가 Big4』를 무대에 올렸다. Big4에 선정된 안무가는 40대 중견안무가들로 전미숙, 홍승엽, 안성수, 안은미 등이었다. '예술 춤의 대중화와 우리 창작 춤의 세계 무대 진출 도모'라는 공연 취지 아래 각자의 색깔이 뚜렷한 안무가들이 신작 또는 대표작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였다.

1997년 초연작을 꾸준히 업그레이드시켜 완성한 안성수의 〈볼레로〉, 항상 어디로 튈지 몰라 관객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파격의 대명사 안은미의 〈Please, Touch Me〉, 일상의 제스처를 모티프로 인간의 이중적 성격을 지적한 전미숙의 신작 〈반.갑.습.니.까〉, 리옹 비엔날레가 인정한 홍승엽의 〈데자뷔〉 등 한 무대에서 만나기 어려운 작품들이었다.

이번 공연이 무엇보다 의의를 갖는 것은 이렇듯 투철한 작가 정신을 자랑하는 안무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도 있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무용전문기획사 MCT의 기획력에 있다.

MCT(Management of Culture & Theater)는 1993년 3월 Design Feel을 모체로 설립되었다. 당시 국립극장에 몸담고 있던 장승헌 대표가 무용계 사람들과 나누어온 친분을 바탕으로 무용공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를 차린 것이다. MCT가 그 동안 기획, 제작한 공연은 〈우리 시대의 무용가〉, 〈한국 남성안무가 초대전〉, 〈우리 춤 스타 초대전〉, 〈춤의 고을 고성사람들〉, 〈춤을 찾는 사람들〉, 〈춤으로 클릭하는 동화〉, 〈2004 무용축제〉 등이다. 그 외에도 대행업무까지 포함해 일 년에 30편을 웃도는 공연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무용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기획사다. 최근 의미 있는 공연들을 해오던 한 기획사가 문을 닫는 등 문화계 전반에 걸쳐 힘든 경기 탓에 기획사가 사라져 가는 추세에서 MCT는 꿋꿋하게 버텨오고 있다. 장승헌 대표의

『오늘의 춤 작가 Big4』 공연 포스터.
위에서부터 전미숙, 홍승엽, 안성수, 안은미 씨

모든 세대의 무용가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그들의 신호등이 되겠다는 겸손한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 우리 무용사에 비추어 보면 그리 길지 않은 기획의 역사 10년이지만 그 동안 쌓아온 그들만의 노하우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 그 결과가 곧 이번 10주년 공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MCT가 그 동안 걸어온 행적을 한눈에 훑어보면서 기획가의 개인적 희생에 의존하는 문화 풍토 속에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국가 행정체제에 대한 당면 과제를 생각해 봤다.

대중성과 예술성 겸비한 작품 기획

MCT를 비롯한 무용기획사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보다 대중을 무용공연장으로 불러모으는 일이다. 대중 스스로 찾아서 보는 무용공연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예술가가 설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일

반관객을 확보해야 한다. CID 한국본부가 자체기획력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SIDance를 비롯해 가네사 프로덕션의 MODAFE, 공연예술기획 이오공감이 합세한 창무국제예술제 등 국제 규모의 페스티벌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금, 그들과 시너지 효과를 누리며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비싼 관람료도 대중을 공연장으로 선뜻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지만, 기획사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국가 정책이 그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랑티켓 제도를 예로 들어보면 막상 관객과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불편하기만 하다. 제도는 있으나 이용하기 힘들다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반관객이 외면하고 있기에 무용공연은 장기공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미있는 공연, 잘된 공연에는 아무리 경제가 불황을 겪고 있더라도 관객이 모이게 마련이다. 몇 차례 장기공연을 시도했던 직업무용단에서 텅 빈 공연장을 원망하며 일찍 막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매슈 본 안무의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이 장기공연에 연이어 도전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안무가의 국제적 명성과 댄스 뮤지컬이라는 대중과 친근한 장르의 작품이기에 가능하겠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단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개인 후원금 얻어내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운 현실에서 좋은 공연, 잘 짜인 기획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일단 투자하고 잘 되길 바라는 시대는 아니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최대한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꼼꼼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한 사후 평가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다. 양심적으로 지원금이 유용하게 쓰였는지, 사업의 목표에 잘 부합되어 뜻한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도 시급하다.

우리 문화가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정책개선이다. 우리가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기엔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절실하기만 하다. 과도기를 겪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구조적

왼쪽 · 안성수의 〈볼레로 2005〉 오른쪽 · 전미숙의 〈반.갑.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위원회에게 무용인들이 바라는 소망은 의외로 소박하다. 가장 근본적으로 무용계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진정 어린 고민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알맹이 없이 겉으로 보기에 거창한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작은 사항들부터 바꾸어 나가길 바란다.

개혁을 시도해야 할 때다.

왼쪽 · 홍승엽의 대표작 〈데자뷔〉 오른쪽 · 안은미의 〈Please Touch Me〉에는 이정우의 소리와 고지연의 가야금이 어우러져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만들었다.

기획은 계획이다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체제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는 취지가 진취적이듯 그만큼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과연 누가 선임될 것이며, 그들이 어떠한 정책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다. 새롭게 시작하는 위원회에게 무용인들이 바라는 소망은 의외로 소박하다. 가장 근본적으로 무용계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진정 어린 고민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알맹이 없이 겉으로 보기에 거창한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작은 사항들부터 바꾸어 나가길 바란다.

문예진흥기금과 서울시문화재단의 2005년 지원 선정작들이 발표되었고, 이미 여러 공연들이 무대에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예술현장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기획' 은 그야말로 '계획' 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처럼 장기계획은커녕 당장 내년의 공연도 계획 세울 수 없다면 지원금 심사에 문제점은 없었는가 재점검해야 한다. 불변의 관행이란 없다. 고쳐야할 관행이라면 하루 속히 고쳐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예술가의 천국' 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경우 유명무실했던 프랑스의 문화성이 1980년대 사회당 정부 출범과 함께 등장한 자크 랑 문화성장관의 현명한 판단과 그에 따른 정책구조개편에 의해 새롭게 거듭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 결실을 톡톡히 보고 있다. 예술지상주의를 표방했던 정책가 한 명이 비현실적 구조를 뒤바꿔 놓았으며, 새로운 전통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온다.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만은 없기에 궁극적으로 이를 운용하고 감시하는 주체인 '사람' 이 문제다. 결국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의문점이 언제나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순수예술이란 말보다는 기초예술이란 용어로 대체되고 있는 이즈음, 그만큼 절실함을 알고 있는 정책입안자들이라면 현명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현장경험이 풍부한,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애쓰고 있는 예술가들을 조금 더 따스한 시선으로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관리자(사측) 입장보다는 수용자(관객)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애정이 더더욱 필요하다.

그 동안 국가나 사회가 감당해야 할 짐을 현장 예술가들에게 또는 기획가에게 너무 많이 떠맡겨온 것은 아닐까. 이들이 자칫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영화산업이나 뮤지컬 산업으로 생계용 입신을 이유로 떠나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관과 협회 그리고 큰 조직이 움직여야 할 사안들과 그리고 개인적, 동호인적 차원의 기획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며 그리고 차별화 되면서 지원, 육성, 발전하길 진심으로 바란다.